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 동 · 서의학 접목, 새 의료인 양성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은 동양학과 서양학과 그리고 대체의학의 장점들을 융합하여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세계의학을 창출하고 인간과 질병과 의료행위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고자 설립된 특수대학원이다. 이 대학원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전문가로 자격을 제한하고 5학기제의 대체의학과 1개 학과로 출발했다.



포천 중문의과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은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제도권의 정통의학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분야의 기술을 수용,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설립되었다.

## 정통의학 이외의 모든 의술·요법 포함

대체의학이란 제도권 안에 있는 소위 정통의학 이외의 모든 의술과 요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정통의학을 보완한다고 해서 '보완의학'이라고도 불린다. 정통의학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소 차이나게 정의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양 의학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한의학을 비롯하여 중의학 등의 동양의학의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는 서양의학 이외의 각 나라나 문화권의 전통 의학이나 민간요법을 모두 대체의학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연의학, 대안의학, 비주류의학과 혼재되어 일컬어지는 대체의학에는, 크게 인도의학 등을 포함하여 최면과 명상과 요가와 같은 정신신체치료, 신경을 자극하는 생전자기장치료, 마사지와 같은 손치료, 상어연골제품 등을 사용하는 약물치료, 인삼과 같은 약초를 이용하는 치료, 비타민이나 제한식이를 실시하는 식이와 영양요법 등으로 구분된다.

한의학의 경우 동·서의학으로 이원화된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의학으로 보지 않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체의학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

세계적으로는 2백여종 이상의 대체의학이 알려져 있으며, 명상이나 호흡연습 등 육체적 운동을 포괄하는 요가, 마사지, 광물질이 함유된 물을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물의 치유력을 이용하는 수치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정신의 진행과정을 통제하는 명상 등 기원 전부터 유래를 가지는 것들로부터 18세기 이후에 나타난 최면요법, 식이요법과 수치료법 등을 혼합한 자연치료법이 있고, 20세기 들어서는 새로이 자가상상에 의한 자기암시법과 식물들의 자연적인 치유력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고친다는 바크꽃 치료법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국내에 소개된 것만도 약초요법, 카이로 프랙틱, 동종요법, 향기요법, 음악요법 등 50여종을 상회하며, 이 중 카이로 프랙틱을 비롯하여 음악요법, 향기요법 등 상당 수는 실제 시술 중이다.

보완·대체의학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에 대한 관심과 연구열이 높아진 것은 제도권 안의 정통의학이 한계점에 부딪치면서 생기는 막연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주 원인이다. 이들은 정통의학 속에서 확실한 실패를 인정하기 보다는 불확실하게나마 희망을 주는 쪽에 의존하고자 하는 기대감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정보화, 세계화의 영향으로 각 사회와 문화의 의학정보들이 보다 쉽게 수집되고 전파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지난 94년 유럽공동체의 유럽회의에서 '모든 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고, 치료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와 같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서양의학의 틀에서 벗어나 대체의학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민간의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또한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사장되거나 음지적인 의료행위로 지탄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자격 제한

그러나 우리나라는 양쪽의 전문인력 자원을 보다 풍부하게 소유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의학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의학을 촉매제로 하여 동·서의학 접목과 새로운 의학을 창출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전세일 대학원장의 말처럼, 아직은 이원화 체계가 잠재적인 몰이해와 갈등과 대립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셈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포천 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이 진료와 교육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각 의료분야의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서양의학과 한의학과 대체의학을 통합한 새로운 종합의학의 물꼬를 트고자 첫 발을 내디뎠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는 이미 지난 95년 학부과정에 대체의학 과정을 개설한 바 있으며, 이번에 대체의학대학원을 설립하여, 대체의학이 대학 뿐 아니라 대학원에서도 정규 교육 분야로서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학원의 강의는 강남 차 한방병원에서 진행된다. 차병원은 이미 수도권 종합병원으로는 처음으로 대체의학 진료실을 만들어 양·한방 협진체제를 구축한 바 있으며 지난 98년에는 대체의학연구소를 설립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침구술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 침술교육을 받고 오는 의사들과 한의학의 국제면허로 부상하고 있는 미국 한의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한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체의학대학원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전문가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5학기제의 대체의학과 1개 학과로 출발했다. ‘서양의 대체의학 성과를 흡수하고, 동양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대체의학대학원의 수업은 서양의학, 동양의학, 대체의학 전반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짜여져 있다.

강의는 크게 대체의학과 동양의학의 두 부문으로 대체의

학분야의 경우 1학기에는 대체의학의 역사, 이론, 원리, 응용과 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체의학 요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물리학, 화학, 환경공학, 전기공학, 생물학, 생태인류학, 철학, 신학 등에서 생명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대체의학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깊이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학기 강의는 요가, 마사지, 꽃요법, 식이요법 등 대체의학 각론으로 진행된다.

동양의학분야의 경우, 1학기에는 음양오행론, 동양의학 연구방법론, 한의학한문과 내경을 포함한 원전, 한방생리 및 병리 등의 강좌를 통해 동양의학의 철학과 개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으며, 2학기에는 동양의학 주요분야의 임상적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방진단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침구학, 사상의학을 비롯하여 중의학 외에 다른 동양의 전통의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나 토론과는 별도로 대체의학분야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특강과 매월 주제별로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대체의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엠페리한의과대학과 상호 학점 이수 인정을 골자로 하는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전세일대학원장은 한의사이면서 동시에 양의사인 부친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동양의학 공부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수받았다고 한다. 그러한 그에게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는 의사로서 평생을 동서의학 접목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할 것이며, 여기서 안 하면 어디서 할 것이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전세일대학원장은 개척자로서의 보람이 큰 위안이 된다고 말한다. 부항요법, 자기요법, 옥을 활용한 건강법, 온돌활용법, 죽염요법, 축요법 등 수많은 우리나라 고유의 우수한 민간의학들이 음성적으로만 활용됨으로써 세계화될 기회를 잃고, 민간의학이 합리적, 법적으로 통제되지 않음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신적, 주술적 방법들마저 성행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대학원이 대체의학분야의 교육과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세계에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⑤7

장미라<본지 객원기자>